

태평양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 증대 합의

-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참다랑어 쿼터 증대에 한걸음 다가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18일에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주요 조업국들이 2027년부터 2028년 동안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참다랑어는 태평양 중서부(한국, 일본, 대만 등)와 동부(미국, 멕시코 등) 전 수역을 회유하는 관계로 양 기구가 합동작업반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 중

이에 따라 태평양 전 수역에 대한 연간 TAC는 현행 23,287톤 대비 약 18% 증가한 27,399톤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증대된 TAC에 대하여 WCPFC의 회원국 중 조업국인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간 쿼터 배분 협상이 남아 있으며, 각국의 쿼터는 올해 12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개최 예정인 WCPFC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쿼터 활용 폭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소형어보다 대형어 어획을 장려하기 위해 권고되는 전환계수 1.47(소형어 쿼터 100톤을 사용하여 대형어 147톤을 어획 가능)을 최신 과학분석에 따라 6.37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1년 단위 쿼터 관리를 2년 단위로 변경하여 첫해에 쿼터를 최대 125%까지 사용(25% 당겨쓰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연한 어업쿼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소형어 쿼터의 전환 가능 한도가 없으나, 6.37 전환계수는 최대 35%까지 적용

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최근 우리 연안에서 참다랑어 대형어 어획이 늘어나고, 동해에서 산란장이 발견되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참다랑어의 어장지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51-773-533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례 (051-773-5398)

참 고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개요

*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일반 현황

- (설립목적) 중서부 태평양 수역의 공치류 외 **고도회유성 어족***의 지속적 이용
- * 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

- (설립일/발효일) '00.9.5/'04.6.19('04. 11. 25 우리나라 가입)

- (회원국: 26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셜제도,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제도, 피지, 인도네시아,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사무국 소재지)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

- (사무국장/의장) Rhea Moss Christian(마셜) / Josie Tamate(니우에)

□ 우리나라 어획 한도량 및 조업현황

- (어획 한도량) '26년 기준, 눈다랑어 및 참다랑어 합계 16,677톤
- (조업현황) '25년 기준, 총 212,273톤 어획

< 주요 어종 어획한도 및 어획량('25년) >

구분	참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어획한도	1,341	-	15,336
조업실적	1,012.8	159,503	11,258

□ 협약 수역: 남위 60도 이북 중서부 태평양(연안국 EEZ 포함)

